



▲주차장 공사관계로 내년 초부터 99년 8월말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

서울 대운동장 내년중 '사용불가'

지하 2층 4천평 규모 주차장 공사로 99년 9월 복귀

내년 중으로 서울캠퍼스의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종합강의동의 건설 허가 조건인 주차장이 현재 시설로서는 부족해 운동장 지하에 2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장을 파내고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지하 주차장 건설이 완료되는 99년 9월 쯤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면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간담 설계회사의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도면 계획을 완성시켜 학교측에 협의의뢰할 예정"이라며 "모든 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12월이면 설계가 끝난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재 종합강의동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산건설에서 맡을 예정

이다. 연면적 4천평으로 총 4백 86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이번 주차장 건설은 종합강의동의 완공예정일인 99년 8월로 예상된다. 한편 주차장이 운동장 지하에 들어설 경우 발생하게 될 학내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 간담 설계회사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차장 입구를 학교 바깥쪽으로 내어

줄 것을 요구,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해 학내 교통 혼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가 차대쪽으로 날 경우 가뜰이나 문제시 되는 교문 앞 교통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 9월 4일 착공에 들어간 종합강의동 공사는 현재 가설공사 준비중이다. (취재부)

대학경쟁시대 '교류' 만이 살길이다

국제교류 못지 않게
내부적 교류 중요해

우리학교는 지난 12월 튀니지의 '센트럴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튀니지 대사, 튀니지의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맺어진 이번 자매결연은 올해 들어 다섯번째 맺는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이다.

이같은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은 결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지난 96년 현재 보유한 외국자매대학의 수가 1백 34개이고 자매대학 수만큼이나 그 교류 또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수단 초청 및 파견,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환학생 초청 및 파견 등, 내용면으로나 실적면으로나 국내 어느 대학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대학과의 교류실적은 그와 동등한 길을 걷는다.

지난 6월 24일 한국체육대학교와 맺은 교류협정이 우리학교가 국내 대학과 맺은 첫번째 조인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7일 후인 7월 1일 상명대학교와 맺은 교류협정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우리학교가 단독적으로 맺고 있는 국내 교류협정 대학은 위의 양대학에 그친다.

이 두 대학과의 협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 대학간 학점교류를 비롯, 교원의 교류, 공동 학술회의 개최, 공

동 연구 등 학술정보 및 자료의 상호 교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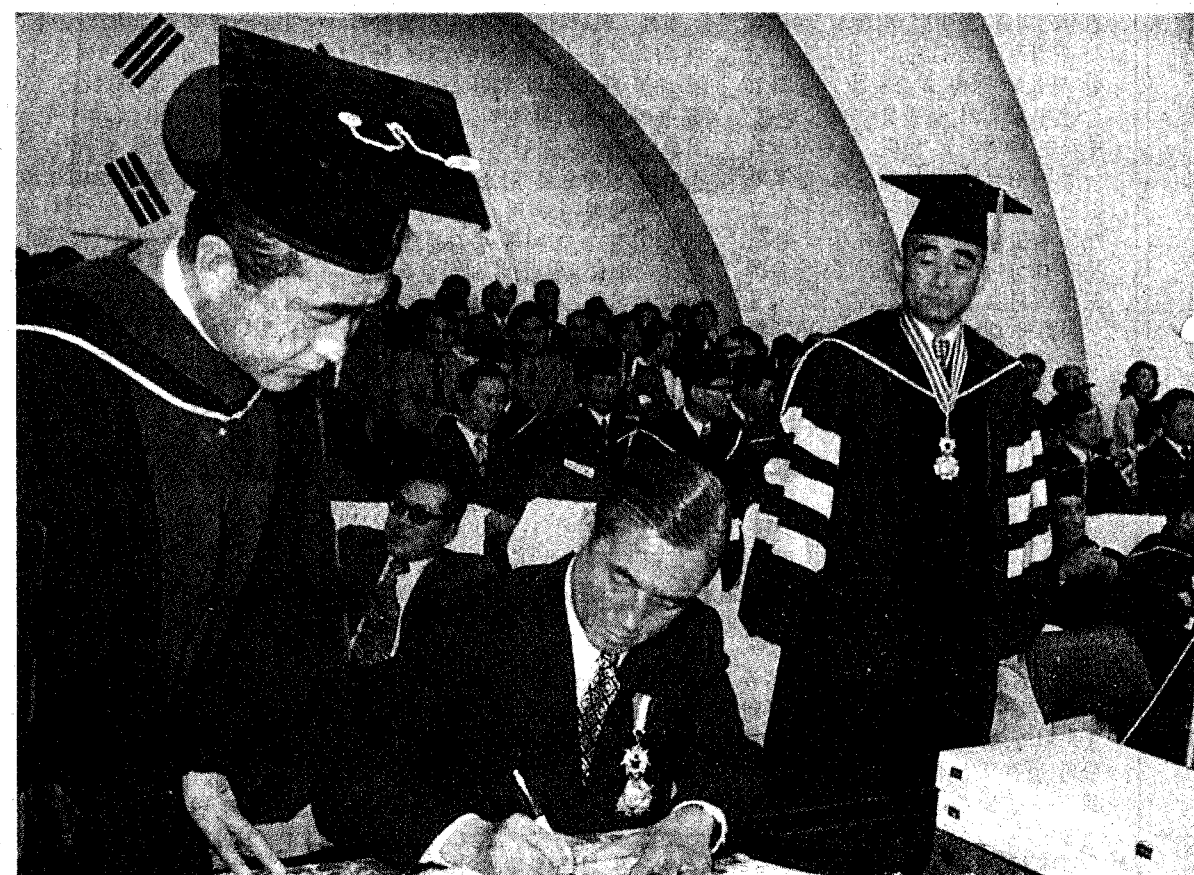
하지만 이와 같은 교류 내용은 그야말로 명목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캠퍼스 유종석 교무과장은 "2회에 걸친 조인이 상대대학의 제의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학교가 상대대학 측에 교류사항과 관련한 활동을 의뢰한 바도 없었던 터라 상대대학 역시 조인식 이후 구체적인 교류 제안을 해오지 않아 실질적인 실적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명목만을 추구하는 국내대학간 교류의 문제점은 더욱 확고해진다.

타대학간 교류는 그렇다 하더라도 캠퍼스간 교류도 현재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 수원 학부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학교는 캠퍼스간 학점교류를 학칙상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교양과목이나 복수전공 해당과목이 소속캠퍼스에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울캠퍼스 학생은 수원캠퍼스에서, 수원캠퍼스 학생은 서울캠퍼스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캠퍼스의 종합시간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양과목의 경우 캠퍼스 간에 한 영역당 2~3개 과목만 차이를 보여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캠퍼스간 거리, 교통문제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캠퍼스간 학점교류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복수전공을 하는 수원캠퍼스 학생이다.

이번 학기 신청 결과로만 보아도 서울캠퍼스 설치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는 수원캠퍼스 학생 20여명이 학점교류를 신청한 전무이다.

국제화 시대, 시대에 발맞추어 발걸음을 밖으로, 밖으로 내놓는 것도 좋다. 그러나 국내 대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술적 정보며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외국의 교육을 들여오는 것은 서툰 진보로 변질되기 쉽다.

가깝게 한양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매대학의 수는 우리학교의 3분의 1에도 지나지 않지만 각종 발전 협력처를 국내에 지정해 재원의 확

보에 힘쓴 결과, 현재는 전문 인력양성 면에 있어 확고한 입지를 굳게 되었다.

외국대학과 교류가 아무리 활발하다고 해도 국내대학과의 교류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접촉의 기회가 적어 심층적인 교류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국내 타대학을 비롯해 우리학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캠퍼스의 유력점을 소화하기만 국제교류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학교가 내부적으로는 캠퍼스별 유력 사항을 상대캠퍼스에 전파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내 대학들과 전문성을 띤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면 그간 쌓아왔던 국제교류의 실적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강남이 기자)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리안: GO KHU 31

하이텍: GO KHU 10

유니텔: GO KHU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고식지계 (姑息之計)

교시탐

고식지계(姑息之計)라는 말이 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 속담의 '연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말이다. 순간의 임시변통이 그 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CRS (Competence Requirement System) 인증제도가 시설비와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고식지계로 전락하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의 CRS는 96학년도 이후 입학생을 대상으로하여 영어와 전산관련과목을 수강한 후 인증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5월 10일 실시한 첫시험은 제도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상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아 지원율이 지극히 낮았으며 알고있는 학생들조차 시험일이 중간고사 직후라 응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준비부족으로 실기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 필기 시험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전산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응시인원이 늘어나 분반하여 시험을 치루어야 할 경우 인증시험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CRS의 인터넷 관련 과목의 추가를 계획하고 있다. 계획중인 강좌는 '인터넷과 정보통신'이라고 서울캠퍼스 이준희 수업과장은 밝혔다. 이것은 현시기에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 보인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전체학생이 CRS의 인증대상이 된다. 전산시설의 확충이나 LAN 망과 노트북 연결단자가 지금에 비해 대폭 증설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다. 교육을 계획함에 있어 신중함과 고도의 능력이 필요함을 일컫는 말이다. 제반 시설이 완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만 수많은 시간학비가 있을 것이다. 현안적으로 시차되었던 CRS 인증제도 고식지계가 백년지대계를 대치한 대표적 사례가 되지 못하리라. (김동희 기자)

기계공, 외래특강 교수 초청세미나



수원, 하반기 연구지원과제 지원

총 지원액 1억 7천 2백만원

수원캠퍼스 연구처는 지난 26일 '97후반기 연구소 및 신입교수, 저술과제 지원과제 선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지원과제 지원금액은 부설연구소 10개과제 1억 7백만원, 신입교수 7개과제 3천 5백만원, 저술 7개과제 3천 만원이다.

부설연구소에서는 아태대학원, 레이저공학연구소(전자공학), 산학협력기술연구소(화학, 건축, 전자공학), 자연과학종합연구원(토목, 수학), 문화생활연구원(서반어), 사회과학정책연구원(사회과학), 생명자

원과학연구원(화학) 등 7개연구소가 선정되었으며 박영두(농학), 이은석(건축), 조대희(건축), 김철준(생물), 김태일(행정), 권세은(리서치), 김운호(아태대학원) 등 7명의 신입교수가 선정되었다.

한편 저술과제 지원은 배기열(문화생활연구원), 김병학(자연과학종합연구원), 유승민, 김인환, 이현수(산학협력기술연구소) 등 5개의 번역저술과 박상수(사회과학정책연구원), 조재립(산학협력기술연구소) 등 2개의 저서저술로 이루어졌다.

기계공학과는 지난 23일 외래특강 교수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 계열사인 유다가 세이믹스 공업주식회사 아가마즈 토시아끼사장이 기계공학분야의 기여 및 기공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10월 15일, 11월 12일, 12월 3일 3차례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실사기메이치공업주식회사는 6년 전부터 매년 기계공학과 졸업생 중 1명씩을 선정하여 기술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과대학의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체이다.

서울 전학대회 1일로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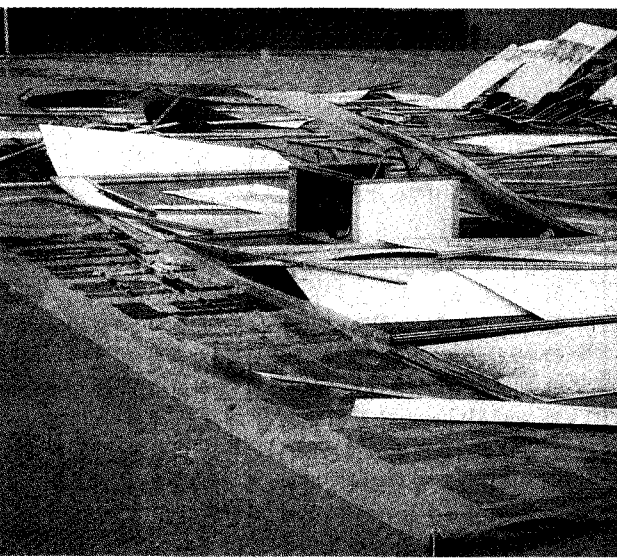
인북위장 문제 회의중 논의

지난 25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하기로 한 서울캠퍼스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오는 10월 1일로 연기되었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번 연기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이번 전학대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이 사단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단위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 미등록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북위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전학대회 당일 전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치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희 SPACE



무너진 채움박람회

지난 25일과 26일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채움박람회'가 26일 폭우로 행사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오후 2시 30분에 행사를 마감했다. 취입이 어려운 요즘 실정에 학교측이 대책으로 마련한 행사마저 실패로 끝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했다.

지면안내

2 시론

환투기 구름이 물려온다

3 학술

지역주의의 태동과 연구경향

5 사회

'97대선과 학생운동의 역할

8 문화

낙서로 살펴보는 대학인의 의식

9 경희 네트워크

'학교에 앉아 세계를 본다'

10 Free Style

학점이 전부는 아니다



경희 그 한주의 역사



1957. 10. 5 올해로 개국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학의 소리방송국이 개국 40주년을 맞아, 사진은 개국 당시 방송국원들의 모습

1967. 10. 2 서울캠퍼스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선승문'이 완공된 날

1971. 10. 5 한방과 양방의 조화로 의료계에 중요한 입지를 세운 '경희의료원'의 개원일

1982. 10. 6 공대, 산업대 9개 학과의 이전 반대에서 발단한 학내 시위가 시작된 날. 이 시위는 장장 6일간이나 계속되었으며 결국 당시 총장을 비롯한 관계교수가 사퇴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교내단신

30일까지 미등록시 '제적' 학과과는 30일까지 미등록한 학생들은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등록 제적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이번 학기의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오는 30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등록전에 등록연기원을 학과과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가을농활 고창으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간 '가을농촌환동(농활)'을 실시한다.

지난 여름 농활에 이어 이번에도 전라북도 고창에서 실시하는 이번 농활은 지난 27일과 28일 사전답사를 마친 상태이며, 27일에는 각 마을별 대표들의 모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전체 교양교육은 오는 30일 오후 5시 30분 정경대 111호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벤처창업 로드쇼 벤처창업 로드쇼가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국제회의실 Peace hall에서 사회대 경영학부, 경영창업동아리 주체로 열린다.

대학내의 창업분위기 조성과 예비창업자들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 경기사무소 이대동 사무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 강연과 (주)우리대 표정갑철등문 성공창업담 등이 마련되어 있다.

서울지역 교무와 협의회장에 김상태 입학관리과장 지난 24일 열린 서울지역 교무·입학부처(과)장 협의회에서 서울캠퍼스 김상태 입학관리과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피선된 김과장은 앞으로 서울지역 교무협의회의를 맡아 운영하게 된다.

사 고

도개비 장터 이용안내

대학주보사에선 학우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벼룩시장인 '도개비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다 배운 교재, 컴퓨터 등 사고 싶은 것, 팔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학내 곳곳에 마련된 도개비장터 대자보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 월요일 대학주보 정보면에 그 내용을 실어 드립니다.

열린소리함 비치

학우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학주보사에선 학내 대학주보 가판대에 '열린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이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열린소리함에 투고하십시오. 언제나 학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